마을만들기 사업, 농촌을 살린다

임실군, 마을학교 등 전개 주민역량 강화 앞장… 마을 매니저도 양성

임실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농업·농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군은 특히 '마을이 살아야 임실이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찾아가는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갖춰 나가며 마을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임실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간조직인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가 주축이 돼 행정과 손을 맞잡고, 농촌마을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임실군 마을만들기 사업은 찾아가는 마을학교부터 마을동아리 운영,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 중이다.

특히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민 참여를 최대한 늘리고, 주민역량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마을만들기의 성패여부를 판가름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에서는 최근 마을주민과 마을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교육에 주력해 왔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2017년 마을 매니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해 지난 12일 수료식을 갖기도 했다.

이 교육은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실군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특색있는 마을의 자원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마을 해설사'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임실의 역사와 문화, 왕의 숲 해설, 자원활용 산양초 이야기 등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통해 전문 마을해설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임실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스토리텔링과 스피치 기법을 학습하는 등 총 12회차 과정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돼 당초 정원인 30명보다 많은 39명이 수료함으로써 짧지 않은 교육기간 내내 참여 열기 또한 뜨거웠다.

군은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농촌관광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체험마을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혀나가고 있다.

신승철 회장은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 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발효소스토굴에 미디어아트 체험테마존 조성

관광객 입장시 전통장 소개 노출로 쉽게 이해토록 구성… 순창군, 내달부터 운영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발효소스토굴에 미디어아트 체험테마존이 새롭게 조성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발효소스토굴 내 미디어아트체험테마존은 전통장을 주제로 한 체험공간으로써 장의 제조과정과 숙성과정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그래픽 체험공간이다.

관람객이 입장하면 얼굴 등을 인식해 별도의 작동 없이 벽면에 전통장에 대한 소개가 노출되고, 공간마다 구성된 주제를 가지고 미디어 콘텐츠가 노출되게 됨으로써 순창 전통장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주제별 4단계로 나눠 감상할 수 있다.

첫 번째 효모만들기 체험존은 관광객이 직접 영상을 통해 효모를 만들어 날린다. 7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곰팡이의 생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메주만들기 체험존이다. 체험자가 만든 효모를 항아리에 모아 넣는 체험이 진행된다.

체험자가 직접 영상미디어에서 곰팡이를 만지면 항아리로 옮기고 걸으면서 균주를 활용한 게임도 가능한 특징이 있다.

세 번째는 장의 발효체험존이다. 메주가 들어간 장이 발효되는 과정으로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발효소스토굴에 미디어아트 체험테마존이 새롭게 조성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장이 발효되는 과정을 다양한 색깔의 거품으로 표현했다. 마지막 장의 숙성 체험존은 장이 숙성되는 과정을 8개 정방향 디스플레이로 계절감 있게 표현했다.

이번사업은 지난해 '차세대 실감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구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이 투자됐으며 지난해 12월 조성을 시작해 다음 주말까지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시험운영을 한 뒤, 7월부터는 순창을 찾는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산업관광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본격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발효소스 토굴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체험관광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면서 "단순 관람용 미디어구축에서 벗어나 체험과 교육기능이 가능한 실감형 체험공간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발효소스토굴은 지난해 3월 완공됐으며 길이 134m, 최대폭 46m, 연면적 4,130㎡규모다.

고추장, 된장, 와인 등 발효식품의 저장을 위해 평균기온 15도에서 18도를 유지한다.

현재 트릭아트, 소스기획공간, 이야기가 있는 유등 조형물, 발표커피 판매점 등이 들어서 있어 순창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후계 농업인 육성 팔걷어

과일 조청 만든 양미영씨 선정 지원

순창군이 성장 잠재력이 크고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후계농업인 육성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지원대상자로 구림면에서 식품사업을 추진중인 양미영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과일은 이용한 조청과 식초, 쿠키를 개발하고 이를 본격 생산하기 위해 농산물가공시설 설비구축 및 사업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양씨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양씨는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전공했으며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의 미래농업을 선도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9기 농업농촌혁신대학을 졸업했다.

특히 부모님께서도 농업농촌혁신대학 3기와 4기를 졸업하여 순창농업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씨는 또 다수의 요리대회 입상과 전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블로그 포스팅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유통 마케팅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으로도 양씨와 같이 성장가능성이 큰 젊은 농업후계자가 창업을 통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공직자 친절행정 생활화 실천계획 발표

"친절은 눈에 띄는 외향적인 서비스 개선보다 친절한 마음씨, 자상한 설명처럼 작은 곳에서 시작해야 시민들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시민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친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공직자 친절행정 생활화 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친절행정 생활화 실천계획은 작지만 실질적인 실천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나 각종 친절시책은 시민들이 친절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자 개개인의 변화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친절생활화 자기점검표를 제작하여 전 공직자의 책상에 비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응대상황에 따라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모두 제시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시는 전화상 표준 인사말과 응대법을 제작하여 모든 직원의 수화기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목소리만으로 평가받는 통화 친절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획에는 시민을 상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마다 자세한 절차와 지침을 제공하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공직자들 개개인이 변화되어야 남원시의 행정이 변화된다. 이번 친절생활화운동을 계기로 착실히 하나 하나 실천해서 모든 국민들이 '친절하면 남원'을 떠올릴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1년에 2회씩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서비스 특강을 개최하고,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친절도 조사를 시행하며,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시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친절도 향상에 진력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임실군이 귀농귀촌 일번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도시민이 '찾아오는, 살고 싶은 임실의 시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에서 열리는 '전북도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임실의 매력을 적극 알렸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라북도와 만나는 101가지 이야기' 라는 주제로 임실군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와 교육기관, 농촌체험·휴양마을, 유관기관, 업체 등 70여개 기관이 참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6일 일자리협력망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다.

이번 협약식은 남원새일센터와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심이 있는 관내업체 17곳이 함께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기업체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공감대 마련의 장이 되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서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고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여, 여성인턴채용지원금 1인 총액 300만원(업체 240만원, 인턴 60만원)과 환경 개선사업(최대 500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인계면,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순창군 인계면은 지난 16일 인계면사무소에서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인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다.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수시로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환영

JCI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전남·광주·전북(형제)지구 JC 간담회

-함지웅 전남지구회장-

-정환균 광주지구회장-

-장승필 전북지구회장-

▶일시/장소: 2017년 6월 24일(토)~25일(일), 모항 해나루

▶참석대상
- 전남, 광주, 전북지구JC 회장단 및 감사 상무위원, 롬회장
- 한국JC 임원, 역대지구회장, 역대임원 등

▶주최: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장 장승필)

▶주관: 정읍청년회의소 (회장 김선홍)

세부 일정(안)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6/24 (토)	15:00~16:00	등록 및 방배정	모항 해나루	
	16:30~17:30	개회식		
	18:00~21:00	석식 및 우정의 밤		
6/25 (일)	08:00~08:30	기상		
	08:30~09:30	조식 및 유식		
	09:30~10:30	어린이 교통캠페인		
	10:30	해단식		

**형제(전남·광주·전북)지구 JC 간담회
전북 방문을 환영합니다.